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코크리트 속 감춰진 '진실'을 찾아서... 7개월 간 부실시공 파헤친 <누락>	3면	더 강력해진 2025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페어링' '티처스2' 연이어 출격	4면	동아미디어그룹 최초의 대중문화사상식 '디 어워즈', 2월 22일 개최
----------------	----	---	----	--	----	--

## “사실의 가치와 압도적 콘텐츠로 용감하게 도전하는 2025년”

동아미디어그룹 스타트업 2025 사흘간 개최...김재호 회장, '혁신적인 도전과 변화' 강조



1월 21~23일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동아미디어그룹 '스타트업 2025' 현장. 사흘 간의 스타트업에서 계열사 대표 및 동아일보, 채널A 실·국·본부장들이 새해 경영 목표를 발표했고, 김 회장은 과감한 실천과 용감한 도전을 당부했다. 사진=편집국 사진부 송은석 양희성

“더 넓게 울려 퍼지는 사실의 가치, 압도적으로 감탄할 만한 콘텐츠, 경이로운 진화를 위한 용감한 도전으로 동아미디어그룹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동아미디어센터 20층 CC큐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2025'에서 올해 3대 경영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회장은 “동아미디어그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왔고 우리 가치를 높이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며 “적용 가능한 것부터 곧바로 과감하게 실천하고 용감하게 도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1일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 22일 동아일보, 23일 채널A 순으로 진행된 스타트업에서 각 계열사 대표 및 실·국·본부장들은 전년도 실적을 공유하고 새해 경영 목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스타트업'이란 명칭처럼 2025년 각자의 영역에서 새롭게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더 넓게 울려 퍼지는 사실의 가치 실현

동아일보 편집국은 공들여 확인한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24/7(24시간, 주 7일)' 디지털 편성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팩트 체크' 시스템을 강화하고, 독자들이 '퀄리티 저널리즘'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유튜브 쇼츠 및 라이브 영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화제성과 독자 니즈를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하고 디지털 편집에 반영하기 위한 회의제도 운영한다.

채널A 보도본부도 올해 디지털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메인뉴스 및 시사보도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와 함께 유튜브 단독과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이다. 채널A만의 영상 아카이브를 활용한 기획 기사와 라이브 스트리밍도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최소화하는 팩트체크 시스템 '플레이' 홈페이지도 리뉴얼한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은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팩트와 논리로 독자의 신뢰를 얻겠다는 구상을 밝혔

- 꺼지지 않는 채널A 라이브(보도본부)
- '24/7' 디지털 편성(편집국)
- 강철부대 제작진의 스포츠 예능(스튜디오D)
- 국내 최대 LED미디어 콘텐츠(미디어솔루션본부)

### 압도적인 콘텐츠

- 퀄리티 저널리즘을 디지털 일상으로(편집국)
- 'Omni-channel' 콘텐츠(보도본부)
- 킬러 콘텐츠 ZONE 운영(편성전략본부)
- 데이터 기반 세일즈+크로스 미디어 전략(콘텐츠사업본부)

### 가장 경쟁력 있는 전달체계

- 모바일 뉴스 시 요약+그룹웨어 시 적용(동아닷컴)
- AI 기반 편집, AI 학습조직 운영(스튜디오D)
- AI SNS 콘텐츠, 굿즈, 자막 제작(편성전략본부)
- 업무 자동화 효율화를 위한 AI 툴 도입(심의실)

### AI를 활용한 도약

- 미디어 앱 비즈니스(동아닷컴)
- LED미디어 활용 신규 비즈니스(미디어솔루션본부)
- D라이브러리 및 과학동아 AiR 확대(동아사이언스)
- 인스타 매거진 mmm 채널 다각화(출판국)

### 디지털 영역 확대

## 2025 DAMG의 도전

다. '불편부당 시시비비'의 기본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개혁 어젠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내·외부 전문가 네트워킹을 지속하며 대표 칼럼리스트 육성에도 힘 쏟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 압도적 콘텐츠와 진화를 위한 도전 지속

올해 신설된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는 동아미디어센터 LED미디어를 안전하게 구축하고, 동아미디어센터가 글로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LED미디어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포부다.

채널A 스튜디오E는 올해 연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압도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하트시그널〉보다 깊고 리얼한 연애를 보여주는 〈하트

페어링〉 ▲예능 솔루션 버라이어티 〈티처스2〉 ▲대한민국 최고 뇌섹인 퀴즈쇼 ▲강철부대 제작진의 스포츠 예능 ▲불안 탈출 힐링 예능 등으로 올해 라인업을 꾸렸다. 채널A 스튜디오D는 〈도시어부〉의 뒤를 잇는 킬러 와일드 예능을 제작할 계획이다. 유명 셰프들이 야생에서 얻은 제철 식재료로 요리를 뽐내는 콘셉트다.

각 계열사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그룹의 영상 콘텐츠 제작 허브를 목표로 삼은 동아닷컴은 2025년 모바일앱 신규 비즈니스, LED미디어 CMS 개발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사이언스는 D라이브러리, 과학동아 AiR 등 디지털 콘텐츠 판매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동아비엔엠은 텔레마케팅 신규 고객사 확보, 전단 제작 및 배포 업무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스포츠동아는 K팝 시상식 '디

어워즈' 개최와 연계한 아이돌 인기투표 사업 등을 시도하고, 동아이지에듀는 어린이동아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신규 회원 및 매출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동아아이엔디와 인터비즈는 각각 외부 매거진 편집, 각종 디지털 행사 및 콘텐츠 제작에서 성장 발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흘 간에 걸쳐 진행된 스타트업에서 김 회장은 “혁신적인 도전과 변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절박하게 기존 방식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디지털 혁신과 영향력 확대를 이뤄낼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조직의 모든 것을 바꿔 보겠다는 각오로 과감히 도전에 나서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콘크리트 속 감춰진 ‘진실’을 찾아서…7개월 간 부실시공 파헤친 <누락>

히어로콘텐츠 9기팀 취재기…21곳 아파트 중 9곳 철근 누락 확인



① 뒷줄 왼쪽부터 구특고 기자(팀장), 안태광 인턴 디자이너, 홍진환 기자, 이문수 기자, 윤서영 인턴 디자이너, 앞줄 왼쪽부터 임희래 ND, 임상아 ND, 김수현 기자, 김지희 PD, 정시은 CD, 안정용 PD, 위은지 기자.



②



③ 동아일보 1월 23일자 1면에 실린 '누락' 1회 지면.  
④ 기자들의 철근 탐사 과정을 담은 동아일보 채널 유튜브 영상.  
⑤ 3D로 철근 누락을 구현한 인터랙티브 기사 첫화면.

‘민간 아파트 427곳 중 부실시공은 0 건.’

히어로콘텐츠 9기팀의 ‘누락’ 취재는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이 한 줄에서 시작했다. 직전 LH아파트 조사에서는 91곳 중 20곳에서 부실시공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9기팀은 우선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다. “법적 기준이 미비한 민간의 철근 누락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취재가 필요했다.

문제는 검증 방법이었다. 콘크리트 속에 파묻힌 철근을 어떻게 확인할까. 단계마다 난관에 부딪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명단과 조사 보고서를 모두 비공개했다. 도면을 구해야 하고, 철근 검사 장비도 확보해야 했다. 모든 과정이 불가능하게 느

껴졌다. 현실적으로 검증이 어렵다면 포기하고 주제를 바꿀지도 논의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꼭 알아야 하지만, 알기 어려운 진실’을 깊이 취재해 알리는 것이라는 탐사 보도의 기본 원칙을 떠올렸다.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 ‘철근 원정대’가 꾸러졌다.

### 21곳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낸 5개월

9기팀이 보낸 대부분의 시간은 지하 주차장이었다. 도면을 확보한 21곳 주차장에서 5개월간 검사 장비를 들고 기둥을 훑었다. 한 단지당 3시간 이상 조사하면 팔,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결과 총 9개 단지, 25개 기둥, 60개 철근 누락을 찾아냈다.

현장 조사뿐 아니라 국토부가 비공개로 일관한 288개 아파트 조사 보고서를 입수

해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도 11곳에서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미달이 확인됐다. 국토부 발표와 달리 콘크리트 속 감춰진 진실, ‘킬러 팩트’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철근 누락은 왜 반복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팀원들이 직접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100곳 넘게 지원했지만 탈락한 끝에 지난해 11월 첫 취입에 성공했고, 철근 공 보조 등으로 근무했다.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에 몸이 쓰였지만 그만큼 기사를 채워갈 팩트들은 늘어났다.

9기팀은 7개월 동안 총 182명을 인터뷰했다. 홀로 누락을 찾아 나선 입주민, 시간 부족에 철근을 묶지 못한 철근공, 누락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자살까지 생각한 감리… 공기 압박과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소외된 현장의 목소리는 ‘누락’ 콘텐츠에 생생하게 담겼다.

‘믿고 맡기면 해낸다’… 히어로팀이 쌓은 레거시

이번 ‘누락’ 기획은 지면 기사 뿐만 아니라 디지털랩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히어로 리마스터’ 콘텐츠를 만들었다. 이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26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인터랙티브 기사에서는 3D 모델링으로 콘크리트 속 철근을 생생히 구현했다. 철근 탐사 과정은 4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내보냈다.

‘누락’은 결코 쉽지 않은 취재였다. 하지만 취재에 실패할 때마다 9기 팀원들은 ‘그오가’를 외쳤다.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좋아, 가보자고’의 앞 글자를 딴 히어로팀만의 ‘비밀 구호’였다. 여기에 히어로팀을 거쳐 간 선배들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잘 해낼 수 있

다”는 히어로팀 경험자들의 조언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됐다.

동아일보는 ‘이래도 되냐’ 싶을 정도로 히어로팀에게 주제 선정과 취재, 기사 작성의 자율성을 보장해줬다. ‘믿고 맡기면 해낸다’는 역대 히어로팀이 쌓아온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 ‘히어로 리마스터’ 강연을 통해 전임 팀장들이 공유해준 ‘꿀팁’도 큰 도움이 됐다.

지난달부터는 히어로콘텐츠 10기팀이 출범해 주제 선정에 몰두하고 있다. 인천 주재 공승배 기자까지 가세해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국팀 기자가 히어로팀에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기팀은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감춰진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구특고

## “한국 언론 역사에 처음 있는 일”… ‘한국 저널리즘의 혁신’이 집중 조명한 히어로콘텐츠

실험적 글쓰기 시도와 수평적 소통 방식 등 소개



①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을 다룬 히어로콘텐츠 ‘산화’ 5기팀이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와 함께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토론하고 있다.



② K팝 아이돌을 취재한 ‘99C’ 3기팀 기자들이 다 같이 모여 지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1883년 ‘한성순보’ 이후 한국 언론 역사 140여 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달 출간된 ‘한국 저널리즘의 혁신’ 저자 중 한명인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새로운 글쓰기 시도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책은 언론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좋은저널리즘연구회’가 한국 언론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분석한 연구서다.

저자들은 책의 13장 가운데 2개 장을 통해 히어로콘텐츠팀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글쓰기 혁신의 실험실’ 제목의 장에는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을 다룬 히어로팀 5기 ‘산화’ 시리즈의 스토리텔링 작법이 소개됐다. 5기팀은 매주 기자들이 글쓰기 모임을 가지며 스토리텔링 방법을 실험했고, 팀원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주 집필자를 정했다. 원고는 교

수, 소설가 등 5명에게 검토받고 수정했다. 이를 두고 박 교수는 “위계가 강하고 극도로 폐쇄적인 한국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평등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서로 배웠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여덟 번째 장은 ‘뉴스룸 커뮤니케이션 혁신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히어로팀의 수평적 소통 방식을 다뤘다. 필자들은 “히

어로팀은 차장이나 부장 등 중간 간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편집국장도 주제 승인 외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는 팀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썼다.

사내 협업에 기반한 혁신 사례들도 다뤘다. ‘한국산 아이돌’을 주제로 한 3기팀을 예시로 들며 “2명 이상의 기자가 한 현장에 가서 서로 다른 시선으로 취재하

고, 의견을 나눠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적었다. 올해 10기째를 맞은 히어로팀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론사 내부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혁신은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고 조직 미래를 밝히는 핵심 열쇠임을 히어로팀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구특고

# 더 강력해진 2025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페어링' '티쳐스2' 연이어 출격

하트시그널 제작진 뭉친 '하트페어링' 3월 7일 첫방송...다시 돌아온 '티쳐스2' 올해 상반기 공개



▲ 하트페어링에 합류한 5명의 MC.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가수 윤종신, 박지선 사회심리학과 교수, 슈퍼주니어 최시원, 오마이걸 미미, 배우 이창아.

2025년 새해 채널A의 예능프로그램이 더 강력해진다. 지난달 28일 첫 방송된 국내 최초 테라피 리얼리티 프로그램 <테라피하우스-애라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1타 강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성적을 부탁해: 티쳐스2>, '어른 버전' 하트시그널을 그려내는 <하트페어링>이 올해 상반기 연이어 출격을 앞두고 있다.

채널A의 대표 예능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성적을 부탁해: 티쳐스>는 올해 상반기 한층 업그레이드 된 교육 솔루션과 함께 시즌 2로 돌아온다. 지난 시즌에 이어 티쳐스 2를 이끌게 된 윤혜지 PD는 "일단 국어 과목의 투입이 첫 번째 시즌과 비교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변화"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국어 1타 강사가 고정으로 합류해 티쳐스의 새로운 강사진으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어 1타 강사의 합류로 '국·영·수 완전체' 강사진을 구축해, 한층 강화된 강사 라인업을 갖추게 된 것이다. 티쳐스2와 함께 할 국어 강사는 조만간 공개된다.

지난 시즌 16명의 학생들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했던 수학 과목의 정승제, 영어 과목의 조정식 강사는 새 시즌에서도 함께한다. 정승제 강사는 "내 역살 잡을 만큼 절실한 학생을 찾는다. 그 역살 잡을 학생 오면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포부를 밝혔고, 조정식 강사도 "내 시간 투자가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믿는다. 이번 시즌에는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PD는 "지난 시즌에 티쳐스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며 "그 사랑은 티쳐스를 찾아온 학생을 사랑하고 진정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 우리 강사진 덕분이라 생각한다. 강사들의 진정성을

더 고스란히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제작진은 시즌2를 찾아온 학생들에게 성적을 올리기 위한 '애프터 과정'을 지난 시즌보다 다양화하는 등 보강된 교육법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티쳐스2의 크루로는 전현무, 한해진, 장영란 3명의 MC와 '입시 전략 멘토'인 미미미누가 함께한다.

여기에 더해 채널A의 새 연애 프로그램 <하트페어링>도 3월 출격을 앞두고 있다. 하트페어링은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선보이는 '어른 버전' 하트시그널로,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결혼 적령기인 남녀가 답을 찾는 과정을 담아냈다. 제작진은 "하트페어링은 '하트시그널 5'가 아닌 아예 새로운 장르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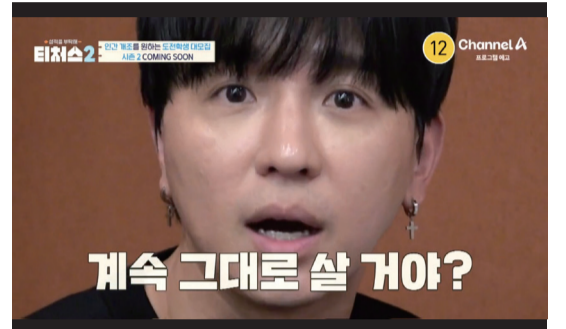
라고 강조했다. 박철한 PD는 "하트시그널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시그널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면 하트페어링은 평생을 함께 해도 좋을 상대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하트페어링의 무대 또한 더 강력해졌다. 출연자들은 지난해 말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한 달 간의 촬영을 마쳤다. 이탈리아 피렌체와 토스카나에서 서로의 직업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서로를 알게 된 후, 몇 주 뒤 한국에 돌아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된 것. 하트시그널 시리즈가 출연자들이 '뽀'를 형성하는 과정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하트페어링은 낯선 나라에서 첫눈에 반한 인연이 결혼 상대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까지 담아냈다. 출연자들 역시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인이 중

심으로, 연애 리얼리티의 진정성을 살렸다고 한다. 윤종신, 이창아, 최시원, 오마이걸 미미, 박지선 사회심리학과 교수가 함께하는 하트페어링은 3월 7일 첫 방송된다.

지난달 첫 방송된 <테라피하우스-애라원>도 연일 애라원 만의 건강관리법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애라원 1, 2회는 베스트셀러 '저속노화 식사법'으로 알려진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출연해 혈당 조절 방법 등 건강관리 꿀팁들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이번 달 방송 예정인 애라원 3, 4화에서는 각각 수면 부족과 여성호르몬 불균형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맞춤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애라원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송수현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최수연



▲ 국어 과목 1타 강사의 합류로 국·영·수 완전체가 된 '성적을 부탁해: 티쳐스2'. 수학과 영어 과목은 시즌1 이어 정승제·조정식 강사가 맡는다.

# 광화문-상암-충정로사옥 콘텐츠 생산 거점 새단장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공간 구성으로 협업 및 소통 강화



①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16층에 신설된 미디어솔루션본부 사무실 입구. ②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6층에 마련된 편집국과 보도본부의 디지털랩 사무실. 벽과 칸막이를 최소화한 '오픈 플로어' 형태를 도입했다. ③ 상암DDMC에 추가로 마련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회의실 전경.



동아미디어센터, 상암DDMC, 충정로사옥 등 동아미디어그룹의 콘텐츠 생산 거점들이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올해 신설된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일보 충정로사옥 16층에 새로 자리 잡았다. 미디어솔루션본부는 콘텐츠 중심 C팀과 디지털 사업 담당 D팀으로 구성됐는데, 새 업무 공간은 두 팀 간 원활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칸막이를 최소화했다. 또 팀장과 팀원의 수평적인 소통을 유도하는 바람개비 형태의 책상 배치도 적용했다.

디지털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이끌게 될 편집국과 보도본부의 디지털랩은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6층 전체를 사용한다. 기존 16층과 17층으로 나뉘어 있던 이전 DX본부 사무실을 한곳으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디지털랩 사무 공간에

는 벽과 칸막이를 최소화한 '오픈 플로어(Open Floor)' 형태를 도입해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기에 동아미디어센터에는 디지털 사 이니지 업무를 협업하는 '콜라보 스페이스' 공간이 상반기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AD본부, 미디어솔루션본부, 채널A, 동아닷컴 등 동아미디어그룹의 다양한 조직들의 디지털 역할을 결집해 압도적인 콘텐츠 제작 등을 논의하는 공간이다.

상암DDMC도 최근 환경 개선 공사를 마무리했다. 4층 출연자 대기실과 분장실은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7층에는 스튜디오D 구역의 팀룸 4곳과 스튜디오E 구역 회의실 2곳 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공간이 추가로 마련됐다.

경영지원국 자산관리팀 정평강  
경영지원본부 DDMC관리팀 손승열

# 동아미디어그룹 최초의 대중문화 시상식 '디 어워즈', 2월 22일 개최

라이즈·투어스(TWS)·NCT WISH·QWER 등 최정상 K팝 아티스트 총출동

동아미디어그룹 최초의 대중문화 시상식인 '디 어워즈(D Awards)'가 오는 22일 오후 6시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다. '우리 콘텐츠로 온 세상에 꿈(Dream)과 기쁨(Delights)을!'을 모토로 한 디 어워즈는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채널A가 주관 방송사인 시상식이다.

제1회 디 어워즈에는 세계 속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최정상 아티스트 14팀이 참가해 특별 무대를 선보인다. 'K팝 신(新) 5대 천황'으로 불리는 엔하이픈과 라이즈, 제로베이스원, 투어스(TWS) 그리고 NCT WISH가 참가를 확정했다. 또 최근 밴드 붐을 주도하며 K팝의 외연 확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그룹인 엔플라잉과 QWER, 국내는 물론 북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피원하모니, 피프티피프티, 82메이저도 디 어워즈에 함께 한다. 또 K팝의 미래를 책임질 '걸그룹 3대장' 트리플에스, 영파씨, 유니스와 JYP엔터테인먼트의 새 보이 그룹

킥플립(Kick Flip)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디 어워즈의 초대 MC로는 드라마 블루칩으로 꼽히는 배우 고민시와 이종원이 선정됐다. '디 어워즈 프리젠티어'로 명명된 시상자 라인업도 화려하다. 배우 차승원과 안은진을 비롯해, 고경표, 미미미누(김민우)와 강남, 가수 겸 프로듀서 박선주, 배우 이학주와 조이현, 서범준이 등장한다. 채널A 드라마 '체크인 한양'의 배인혁-김지은 콤비와 정건주는 물론이고 '마녀'의 남녀 주인공 박진영과 노정익도 시상자로 나선다.

스포츠동아는 동아일보 출판국 인스타그램 매거진인 'mmm'과 협업해 디 어워즈 출연진의 백스테이지 단독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 어워즈는 2월 22일 밤 10시 30분 채널A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허민영



① 제1회 디 어워즈를 빛낼 퍼포먼스 라인업 14팀.  
②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유픽(upick)과 WSM이 주관하는 K팝 시상식 디 어워즈는 오는 2월 22일 오후 6시에 개최된다.  
③ 디 어워즈의 초대 MC를 맡은 배우 고민시와 이종원.



## 3대 동아마라톤 참가권 묶은 '2025 동아마라톤 멤버십' 인기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4000명 넘게 신청



서울, 공주, 경주 등 3대 동아마라톤 대회 참가권을 묶은 '2025 동아마라톤 멤버십'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동아마라톤이 쌓아온 명성에 더해 러너들의 수요에 맞춘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끈 것.

문화사업본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025 동아마라톤 멤버십' 접수를 시작했다. 동아마라톤 멤버십은 "3대 동아마라톤을 모두 뛰면 받을 수 있는 '런저니(Run journey)' 메달을 받고 싶지만 각 대회 참가 접수가 너무나 빨리 마감돼 아쉽다"는 러너들의 반응에서 시작됐다. '런저니' 메달

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3개 대회를 모두 완주한 러너들에게 자신의 기록을 각인해 주어지는 메달로, 마라톤 커뮤니티에서는 '가장 갖고 싶은 메달'로 꼽힌다.

올해 처음 시작된 동아마라톤 멤버십은 3월 열리는 서울마라톤 미신청자와 신청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모집했다. 서울마라톤 미신청자 멤버십(20만 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마라톤, 9월 공주백제마라톤, 10월 경주국제마라톤 참가권을 부여한다. 여기에 더해 내년 서울마라톤 우선 참가 신청권도 제공한다. 미신청자 멤버십은 접수 시작 38분 만에 선착순 1000명

모두 마감됐다. 또 올해 공주백제마라톤, 경주국제마라톤 참가권과 내년 서울마라톤 우선 참가 신청권을 묶은 서울마라톤 신청자 멤버십(12만 원)은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3000명이 넘는 러너들이 신청했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안중산 팀장은 "이번 멤버십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근 러닝 열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동아마라톤을 좋아하는 러너들의 참여를 더욱 더 높이는 '락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사업본부 스포츠기획팀 김승현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권장우 /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 ①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동: 동네 곳곳에 스포츠의 즐거움을 전하고 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의 힘으로 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뚝딱라도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② 스니커즈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트렌드세터입니다. 최신 디자인과 컬러를 항상 주시하며,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레트로부터 하이테크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즐기고, 각 브랜드의 러닝 기록 단축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스니커즈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패션을 완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 ③ 아디다스코리아, 풋락커코리아



송수현 / 채널A  
스튜디오E

- ① '채널A는 트렌디하고 세련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채널이다'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이 갖게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기민하게 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실력 있는 제작진을 확보하고 좋은 아이템을 찾아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② '심신의 안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요즘 저의 화두입니다. 기민히 있어도 마음안에선 천길 낭떠러지와 느림은 대지가 함께 펼쳐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의 스위치를 좀 더 자율적으로 켜다 켤 수 있는 지 여러분의 팁은 무엇인가요?
- ③ 필콘스튜디오

### 수상소식



#### 히어로콘텐츠팀 제56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부문 수상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 '트랩: 돈의 뒷에 걸리다' 기획 시리즈가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56회 한국기자상 기획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 8기 김호경 김소영 김태연 서지원 위은지 홍진한 이승건 황준하 김중민 기자는 불법 사채 조직을 5개월간 추적해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 사례와 부조리를 보도했고, 국회와 정부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소영 김태연 서지원 위은지 기자는 트랩 시리즈로 제22회 한국여성기자상 혁신부문 기자상도 수상했다.



#### 동아일보 사진부 양희성 기자 스포츠 부문 최우수상

제61회 한국보도사진전 스포츠 부문 최우수상에 동아일보 사진부 양희성 기자의 '오상욱, 금빛 포효(사센)'가 선정됐다.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서 튀니지 선수를 상대로 금메달을 확정 지으며 포효하는 오상욱 선수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포착했다.



#### 동아일보 사회부 이소정 기자,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동아일보 사회부 이소정 기자(사센)가 '2024년 행정안전부 정책소통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기사는 '도로에 드리워진 고령사회 그늘' 기획과 지난해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당시 금속화재가 소방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 기준이 없다는 내용 등을 보도해 안전 분야와 지방소멸 주요 현안을 알린 공을 인정받았다.

